

11학년, 지금은 지원할 대학을 찾아야 할 때

이제는 11학년 차례이다. 이들은 이제 입시 전선의 최전방에 섰다. 지금부터 자신이 가고자 하는 대학을 생각해 두어야 한다. 그렇지만 지원할 대학을 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아무리 미국 대학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50개 이상의 대학 이름을 꿰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것이다. 기껏해야 아이비리그 대학 아니면 주립 대학 정도를 아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미래교육연구소(소장 이강렬, www.tepi.kr)는 11학년이라면 지금은 '나만의 대학 리스트'를 만들어 볼 때라며 그 방법을 소개했다.



■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

문제는 지원할 대학을 고르는 선택 기준이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 명성인가? 전공인가? 그렇지 않다면 전공, 학교 크기, 날씨, 위치? 어떤 학부모는 "내가 아는 대학에 가야 한다"라고 고집하기도 한다. 어떤 학생은 대도시여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또 어떤 학생은 기계공학 전공의 랭킹이 높은 대학에 가고 싶다고 말한다. 이처럼 사람마다 지원할 대학을 선택하는 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다.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지원할 대학의 선택이 달라진다. 그러나 대학 선택의 기준에서 학비를 빼 놓을 순 없다. 아무리 명문 대학에 합격했다더라도 학비를 부담할 수 없다면 합격은 그림의 떡이다. 합격해 놓고도 대학을 다니지 못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솔직히 지원할 대학 리스트를 만들 때는 이것저것 깊이 따지면 힘들다. 위의 기준을 섞어서 자신이 가고 싶은 대학을 20-30개 정도를 추리고 여기서 더 조건들을 따지면서 세밀하고 학교를 조정해 가

는 것이 좋다. 그러나 꼭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대학 랭킹' 만을 보고 대학을 선택하지 말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유에스 뉴스 앤 월드 리포트'지의 대학 랭킹을 보고 대학을 선택하고 있다. 이렇게 만든 리스트는 한마디로 '바보 리스트'일 뿐이다. 미국 대학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는 칼리지보드 등 많은 웹사이트들이 있다. 이 웹사이트들을 활용해 다양한 대학들을 알아 보는 것이 좋다.



■ 칼리지 파일을 만들자

지원할 대학을 검색하면서 노트나 컴퓨터 파일을 활용해 자신만의 리스트를 만들자. 대학 이름과 전공, 학비, 지원 마감 시기, 지원 조건, SAT-ACT 점수 등을 기록해 놓으면 된다.

각 대학의 입학 사이트와 연동시켜 놓으면 더욱 좋다.



■ 지원 대상 대학 웹사이트 방문하기

어느 정도 리스트가 완성되면 대학 웹사이트를 하나씩 방문한다. 이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해당 대

학의 입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웹사이트에는 시사하는 바가 많다. 웹사이트가 대학의 수준과 이미지를 말해주기도 한다. 학교의 이미지를 느낄 수 있다. 웹사이트에는 학생들이 원하는 정보가 거의 담겨 있다. 입학과 지원에 대한 정보에서부터 장학금 정보까지.

장학금이 필요하면 대학 선택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 칼리지 페어 및 전문 컨설팅 기관의 정보 받기

각 대학마다 입학 설명회가 있고, 전문 교육 컨설팅 기관들의 무료 특강, 설명회 등도 있다. 직접 칼리지 페어에 가는 것이 좋고, 컨설팅 기관들의 특강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도 좋다.



■ 대학 캠퍼스 직접 방문하기

지원할 대학을 더 압축한 다음 꼭 가고 싶은 서너개 대학의 캠퍼스를 방문해 보자. 대학을 파악하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가장 좋은 시기가 봄 혹은 여름방학이다. 미리 예약을 하고 학교 입학 사정관을 만나는 것도 좋다. 공식 투어에 예약을 하고 가능한 많은 질문을 준비해 가자.

■ 지원 대학 리스트 확정

대학을 Reach-Match-Safety로 나눠서 분류한다. 내가 꼭 가고 싶지만 약간 높은 대학, 적절한 대학, 안정권 대학들로 나눌 수 있다. Safety 대학은 반드시 2-3개를 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불합격'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맞을 수 있다. 특히 재정정보/장학금이 필요한 경우라면 더욱 대학 선정에 신경을 써야 한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